

건강 칼럼

혈관종의 원인 및 치료법

아 이 몸의 반점, 혹은 혈관종? 붉은 점 모양으로 나타는 혈관종은 영아의 약 5~10%에서 발견되는 흔한 피부종양이다.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것으로 색깔은 분홍색, 빨간색, 암적색 등이 있다. 크기는 쌀알 크기부터 열굴만큼 큰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에 빨간 반점처럼 생기는데 갑자기 커진다. 생후 2~3주일 뒤에는 피부 표면보다 높아지며 생후 5개월에서 1년까지 점점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몇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7세까지 없어질 확률은 70% 정도로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서서히 없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경과만 관찰하면 된다. 발생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와 목이 60%, 몸통이 25%, 사지가 15% 정도라고 보면 된다.

▲혈관종의 원인

혈관종은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미숙아에게서 생길 가능성이 높고, 남자보다 여자아이에게 3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 의뢰계에서는 유전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병 후 50%는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약간의 흔적이 남는 경우는 혈관 확장, 피부 위축과 함께 주름, 노란색의 색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흔적이 많이 남는 경우는 궤양이 있었던 경우의 흉터나 혈관조직이 섬유지방조직으로 바뀌면서 피부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외에도 머리에 발생한 경우에는 모낭을 손상시켜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출혈이나 궤양, 감염, 신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혈관종은 주위에 생기면 시력 저하나 약시가 생길 수 있고, 기도 부근에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함께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혈관종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수술결과가 좋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한 후에 시행하는 게 좋다. 또 성인이 되어서 혈관종이 생기기도 한다. 성인 혈관종은 얼굴보다는 팔이나 등, 가슴과 같은 몸통 부위에 잘 생기고 연한 선홍색부터 보랏빛까지 다양한 색깔을 띠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유아와 달리 혈관종의 크기가 자라지는 않고,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혈관종으로 오인하기 쉬운 혈관기형

반면 혈관종과 비슷하지만 치료법이 전혀 다른 '혈관기형'이라는 질환이 있다. 혈관기형은 혈관의 기형적 증식이 특징이다. 이 질환은 청

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혈관종과 달리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두경부에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구강과 인두, 후두 등 삼키고 말하며 숨 쉬는 기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 타인의 눈에 쉽게 노출되는 얼굴과 목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용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혈관기형은 보통 피부를 통해 종괴 내부에 경화제를 주입하는 경화요법이나 수술로 치료한다. 하지만 부위와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혈관종과 혈관기형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에 위협되는 경우 치료해야 혈관종을 관찰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이는 시력 손실이나 호흡 부전, 심부전, 위장관계의 출혈, 심한 궤양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갑작스럽게 커져 신체의 기형을 유발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치료하는 게 좋다.

혈관종의 성장을 늦추거나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는 경구 스테로이드 혹은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입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생후 3주 이내에는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해야 한다. 또 스테로이드는 퇴행이나 정지 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증식에 사용해야 한다. 경구 스테로이드가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입법보다 효과가 있지만 이는 혈관종의 위치나 크기, 환자의 나이, 시술자의 경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페론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혈관내피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종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시각장애의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 1세 이하에서는 감작성의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 레이저 시술은 성장기의 혈관종과 잔류 혈관종에 모두 효과가 있다. 치료는 3~4주 간격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시행하게 된다.

혈관종이 줄어든 후 남아 있는 흉터 등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퇴행이 끝난 이후에는 하는 것이 출혈도 적고 수술을 범위도 작아지게 된다. 성장기에 있는 혈관종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크고 중요 기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정격용량의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가정, 직장 등에 손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철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무절제한 난방기기의 사용이다. 간단하지만 일한 작은 습관으로 목숨까지 앓아기는 난방화재를 대비하여 따듯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내도록 하자. 김지은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독자제언

겨울철 화재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계절기기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겨울철 전기식 난방기구, 동파 방지 열선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계절기기의 사용에서 기인한 화재는 대부분 주택화재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동절기 화재 피해 유형으로 난방기기의 사용으로 기인한 화재가 52%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는 동절기 주요 화재 요인 및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화재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전기장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는 장판 내부 열선의 단선을 초래한다. 이는 화재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전기장판과 겨울철 많이 사용

겨울철 난방화재, 미리 조심하자

하는 보온성이 뛰어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를 혼용 할 경우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은 배가 된다. 따라서 전기장판은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 접지 말고 펴둔 상태로 보관해야하며, 고온사용은 금물, 그리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혼용을 금하는 것이 전기장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이다.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이 화재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바로 과부하로 인한 온도의 상승인데, 이로 인해 콘센트에 있는 전선들이 과열되어 타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불꽃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지역 발전에 힘 모아야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관심을 집중해야겠다. 중심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야권이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에 관심이 적다는 게 확인되었다. 약속한 게 있어서 힘을 보태줄까 기대가 컸는데 말이다. 예산 증액 등 긍정적인 고인 맞추기보다는 여권 비판을 위한 정치적 발언 쪽에 힘이 실린 것이다. 그래야 전북도와 도민들의 관심이었던 4대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울화로 미루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도 정치권은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여권은 여권대로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고, 야당들은 통합 논의와 내부반발로 온통 시끄럽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관심사가 흩어져 있는 이때, 전북도는 현안에 진심으로 마음을 두어야 한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도 전북도의 최고 우선 순위는 지역 발전 쪽이어야 한다. 도민들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목소리 말고 적극적인 목소리 말이다.

전북도는 도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전북도에게는 현재 네 가지의 큰 숙제가

있다. 새만금사업의 개발 지연과 탄소산업 지연은 더 반복해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유치한 세계캠버리 대회의 성공개최를 명분으로 새만금 프로젝트 키워야 한다. 물론 속도감이 있는 개발 작업이 목표다. 그리고 SOC 문제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할 말을 해야 한다. 예산 증액에 고사하고 예산이 축소돼 반영된 지금이나 도민들은 어이 없어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력스러움을 보여야 하는데 제 몫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향토의 발전성이 시원치 않고 했거니와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전북도는 올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의 자존과 재운 찾기를 말하기로 했으면 이제 그 할 말을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을 말해야 하고, SOC 확충을 말해야 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말해야 한다.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말해야 하고, 소외된 현안의 관심 촉구를 말해야 하고, 군산조선소의 회생을 말해야 한다. 그렇다. 전북도는 지역을 가필코 발전 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애써 분발해 계속 힘을 내야한다는 격려이다.

미래를 약속한 사업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미래를 약속한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지금은 잠잠하니 말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그뿐이라곤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큰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전북도의 사업 발굴을 책임자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전북도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뒷심 발취가 늘 어렵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달라는 당부이다.

전북도가 여러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추진돼야만 한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지역 발전 사업은 국회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업들을 분개도에 올려놓으려면 그 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관계자들은 얼마나 힘썼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기를 젊은이들은 고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구체적 추진을 위해 힘차게 뛰어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